

SAFE INCHEON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소식지
INCHEON DISASTER NEWSLETTER

JUNE 2026
No.7



02 포커스

폭염과 일상안전

05 전문가 칼럼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위기 시대,
폭염중대경보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09 정책소식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국가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열대야 안심숙소

11 인터뷰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박근선 사무관

14 주요행사

제11회 재난안전전시회
인천연구원-UNDRR ONEA &
GETI 협력 선언문 조인식
2026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16 폭염 6대 행동요령

포커스

폭염과 일상안전

폭염과 일상안전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낮의 일시적인 더위로 여겨졌던 폭염이 이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고온 현상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더위 또한 해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닙니다.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시민들 역시 폭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는 우리 일상에서 반드시 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폭염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폭염 심각성 인식



인천 시민 10명 중 약 7명 폭염을
'심각' 수준으로 인식

매우 심각 13.5% 대체로 심각 55.5%

※ 인천 시민 742명 대상 조사

여름철 재난 유형별 위험 인식

발생 가능성·심각성 순위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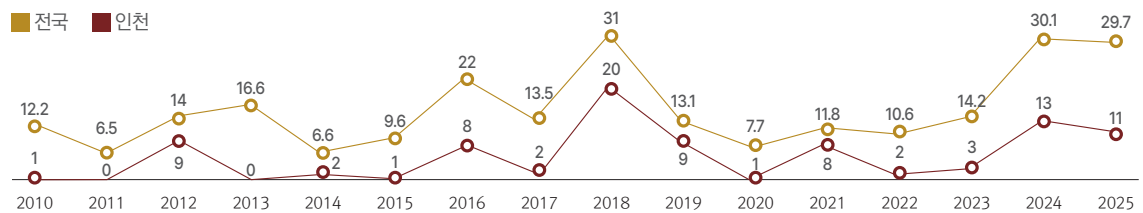
폭염,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 모두 1위

출처: 연다혜·조성윤(2025), 「인천광역시 폭염 현황 분석 및 대응 강화 방안」

폭염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비정상적인 고온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특보가 발령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날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낮의 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는 열대야 현상도 함께 증가하면서, 폭염의 영향이 온종일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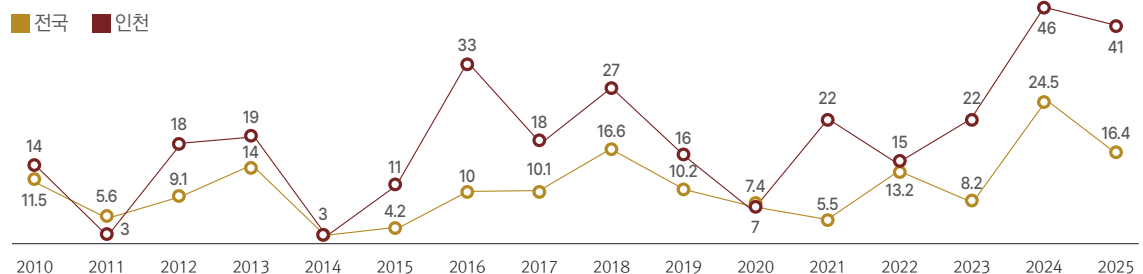
폭염일수

(단위: 일)



열대야일수

(단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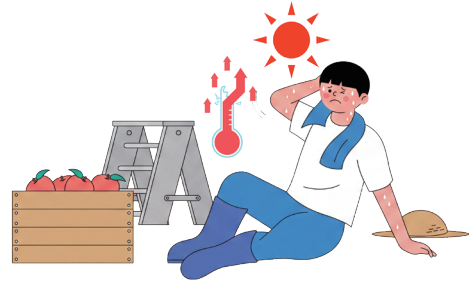


출처: 기상청(2026), 기상자료개방포털

인천시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폭염이 점차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폭염이 부르는 온열질환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두통, 어지럼증, 근육 경련, 극심한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을 동반하는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악화될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형	주요 증상	대처 방법
열사병	40℃ 이상 고열 - 피부가 뜨겁고 건조함 - 의식 저하 또는 혼수 상태	-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깁니다. - 옷을 느슨하게 한 뒤 물수건, 부채, 선풍기, 얼음 등으로 몸을 빠르게 식힙니다.
열탈진	- 과도한 발한 -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감 - 창백함, 근육 경련	-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하도록 하고,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합니다. -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열경련	어깨, 팔, 다리, 복부 등의 근육 경련	경련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합니다.
열실신	- 일시적 의식소실 - 어지럼증	- 시원한 곳에 눕히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립니다. - 의식이 있으면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열부종	손, 발, 발목 등의 부종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부종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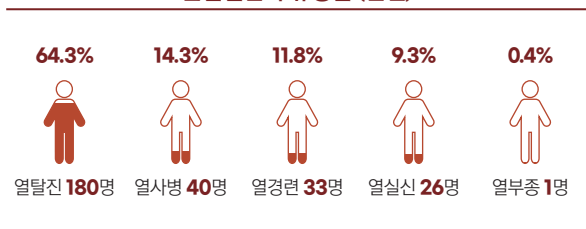
※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5.15.~9.25.) 신고 자료 기준

온열질환자		추정사망자 (전국 기준) : 29명 * 인천 추정사망자 2명		
전국 4,460명 20.4%↑ 전년(2024년)대비	인천 280명 36.6%↑ 전년(2024년)대비	연령별 34.5% 80세 이상	질환별 93.1% 열사병	발생장소 79.3% 실외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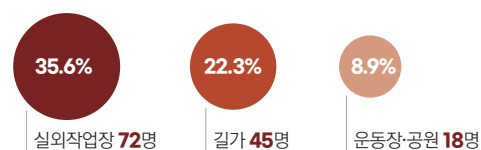
인천시 군구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32명 (인구 16.5만)	10명 (인구 5.8만)	33명 (인구 42.2만)	26명 (인구 41.7만)	28명 (인구 49.3만)	25명 (인구 50.5만)	34명 (인구 27.9만)	80명 (인구 63.4만)	10명 (인구 6.6만)	2명 (인구 1.9만)

온열질환자 유형별 (인천)



발생장소 (인천) : 실외 72.1%



출처 : 질병관리청(2025),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포커스

폭염과 일상안전

폭염과 취약계층

폭염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같은 더위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신체적 조건이나 생활 환경, 주변의 도움 여부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이들이 왜 더 위험한지, 그리고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심과 행동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더위를 견디기 어려운 사람



-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거나 기존 건강 상태가 더위에 취약한 분들은 폭염의 영향을 더 빠르고 크게 받습니다.
-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땀샘 기능이 저하되고 체온 변화나 탈수 증상을 스스로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 어린이는 몸에 비해 열 흡수 면적이 넓고 땀 생성 능력이 낮아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 만성질환자의 경우 폭염으로 기존 증상이 악화되고 탈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가정이나 주변에 어르신과 어린이가 있다면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만성질환자는 폭염특보 발령 시 외출을 자제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환경



- 농업인, 야외 근로자처럼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멈추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 장시간 직사광선과 고온, 자외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체온 조절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 땀 배출은 늘어나지만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 중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고,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 2시~5시 사이의 옥외작업은 중지해 주세요. 물과 이온음료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냉방 시설이 부족한 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은 위험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 의사소통이나 위험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한 불편이나 이상 증상을 제때 알리지 못할 수 있어 주변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웃이 있다면, 폭염특보 발령 시 안부 전화나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안내하고, 온열질환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나 119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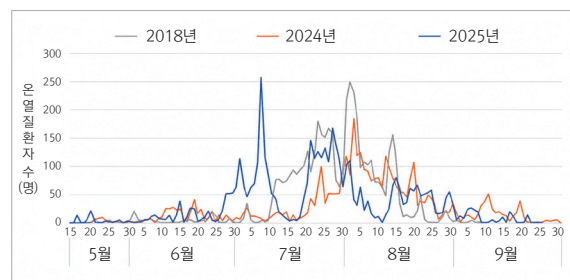
최용준
대구정책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위원

들어가며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여름철 폭염은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일수가 길어지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며칠 더운 날씨 정도로 받아들였던 폭염이 이제는 도시의 안전과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기후재난이 됐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발표('25.10.21.)에 따르면 2018년 온열질환자 수는 4,526명(사망 48명), 2024년 3,704명(사망 34명), 2025년 4,460명(사망 29명)으로 집계되어 꾸준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온열질환자의 상당수가 고령층과 야외 노동자이며, 도시 내 낡은 주거지, 그늘 없는 보행로, 돌봄 사각지대, 야외 노동 현장 등 우리가 평소 놓치기 쉬웠던 도시의 취약한 부분이 폭염 시기에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폭염은 단순 기상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연결된 재난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림〉 온열질환자 수 발생 추이('18년, '24년, '25년)



출처: 질병관리청(2025),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발표」

도시 열환경 변화와 폭염대책

최근 각 지자체들은 폭염의 장기화와 도시 열환경 변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도시 열환경 변화는 단순히 특정 지역이 덥다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열환경 자체가 시민 건강과 도시 운영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도시 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무더위쉼터 운영, 그늘막 설치, 살수차 운영, 취약계층 보호 활동 등 다양한 폭염대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폭염을 단순한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라 도시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인으로 바라보고 폭염대책을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실제 생활공간과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폭염대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 칼럼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환경 중심의 폭염대책 강화

앞으로는 폭염 대책 역시 시민들의 실제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하게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위험, 그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폭염 대책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각 지자체에서는 열취약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도심 내 그늘축 조성, 쿨루프 확대, 물안개 시설 설치, 이동형 쉼터나 스마트 그늘막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생활환경 중심의 폭염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주요 도시들도 생활환경 중심의 폭염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폭염대응을 위해 대규모 도시 녹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내 녹지와 수목을 확대하고, 학교, 공원, 광장 등을 활용한 폭염 저감 공간을 조성해 생활권 중심의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폭염 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열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 취약지역 분석과 보행환경 개선, 냉방 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도쿄 역시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며, 폭염 취약시간대 행동요령 안내와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시 전방위 대응체계로의 전환

폭염 대책 수립과 그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보호체계의 정교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폭염 취약계층은 고정된 명단만으로 모두 설명되기 어렵다. 건강 상태 변화나 전기요금 부담, 가족의 부재, 주거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위험도는 시시때때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자료와 보건자료, 기상자료 등을 연계해 폭염으로 인한 위험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인력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폭염은 시민 건강과 복지, 도시계획, 에너지 사용, 교통과 보행환경까지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환경·교통 등 지역의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연계형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체질 자체를 기후적응형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나무 한 그루, 그늘 한 조각, 물길

하나가 도시의 열환경을 완화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산림청 보도자료(25.5.8.)에 따르면 실제로 도시 숲은 주변 온도를 3~7℃ 낮추고, 습도는 9~23% 높여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며, 도시숲의 증가는 호흡기 질환 진료 건수를 줄인다고 한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기후위기 시대, 폭염은 앞으로 도시정책이 반드시 대응해야 할 대표적인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폭염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도시 내 온도를 낮추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 어느 누구도 더위를 견디지 못하거나 더위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어느 누구도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도시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폭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도시 열환경 개선을 함께 연계하려는 정책들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결국 폭염 대응은 시설과 기술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도시가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지, 행정이 위험을 얼마나 미리 준비하고 있는지, 지역사회가 취약한 이웃을 얼마나 함께 돌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폭염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질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중대경보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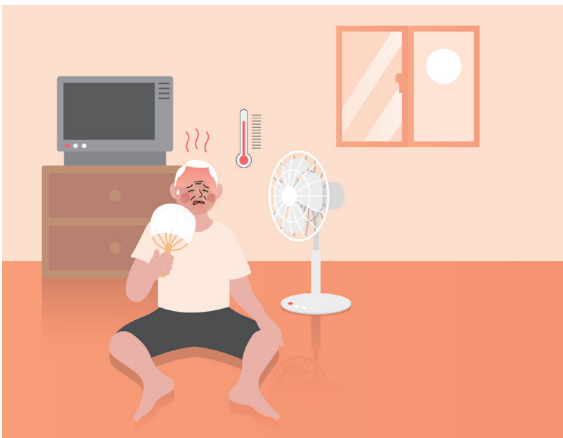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서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여름철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기후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또한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15~'25년) 평균 폭염일수는 17.6일로, 1980년대 평균인 7.9일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열대야 일수 역시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며 '밤에도 식지 않는 더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2025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25.7℃로 평년보다 2.0℃ 높아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46일에 달했다.

이러한 폭염과 열대야 일수 급증은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으며, 최근 8년간 누적 온열질환자는 2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폭염 사망자의 6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고, 대부분이 야외 활동 중 피해를 입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는 호우나 태풍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상청은 최근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했다. 이는 기존 폭염특보 체계가 최근의 극단적 기후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존에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루 중 가장 높은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될 때 주의보를, 35도 이상일 때 경보를 발령하는 2단계 체계로 운영되었지만, 최근 폭염경보가 장 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각심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2025년 서울에서는 7~8월 동안 폭염경보가 24일이나 발령되었고,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8%가 "폭염경보 발령 시 행동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경보가 너무 자주 발령되다 보니 시민들이 이를 일상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의 폭염은 단순히 낮 기온이 높은 수준을 넘어선다. 체감온도 38℃ 이상의 극단적 고온은 온열질환과 사망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는 인체 회복을 어렵게 만들어 건강 피해를 누적시킨다. 그럼에도 기존 특보 체계는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염'을 별도로 구분해 전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폭염중대경보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매우 덥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발령되는 최상위 단계의 경보이다. 발표 기준은 일최고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으로 설정되며,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략 10년에 한 번 수준의 '극단적 고온 현상'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 8월 1일 사례이다. 이는 폭염을 태풍·호우와 같은 수준의 중대한 재난으로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겠다는

전문가 칼럼

기후위기 시대, 폭염중대경보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선언에 가깝다.

또 다른 변화는 열대야주의보 신설이다. 지금까지 폭염 대응은 주로 낮 시간대 최고기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실제 건강 피해는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야간 고온은 수면 부족과 탈수, 심혈관계 부담을 증가시키며 고령층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열대야주의보는 이러한 야간 위험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특보체계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경보 단계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국민 행동 변화와 실질적 대응을 유도하는 데 있다. 기존 폭염경보가 “주의해야 하는 날씨 정보” 수준에 머물렀다면, 폭염중대경보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재난 신호로 기능해야 한다. 위험 시간대 야외활동을 멈추고, 냉방 가능한 공간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행동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특보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첫째는 범정부 차원의 연계 대응 강화다. 기상청의 특보는 위험을 알리는 출발점일 뿐이다. 실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이 즉각적으로 연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야외작업 제한, 취약계층 안전 점검 등이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다. 폭염 피해는 결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야외노동자, 이동노동자, 독거노인 등은 냉방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이 낮아 폭염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

셋째는 도시 환경 자체를 폭염에 강한 구조로 바꾸는 장기적 접근이다. 최근 폭염 피해는 도시 열섬현상과 결합하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녹지 확대, 바람길 조성, 보행자 쉼터 조성 같은 기후적응형 도시 인프라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폭염은 앞으로 점점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시계획과 기후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의 신설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위험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제 폭염 대응은 단순한 여름철 건강관리 수준을 넘어, 과학적 예측과 사회적 보호체계, 시민 행동 변화가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재난관리 체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보 개편으로 강화되는 폭염 대응 체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기상청은 2026년 여름부터 18년 만에 폭염특보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의 주의보·경보 체계 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새롭게 추가되며, 야간의 열 스트레스를 별도로 고지하는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됩니다.

폭염중대경보 신설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극단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경보 상위에 최상위 단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2단계 특보 체계에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되어 총 3단계로 개편되며,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인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즉시 발령됩니다.



폭염주의보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폭염경보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폭염중대경보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 예상

열대야주의보 신설

같은 낮 더위라도 전날 밤에 열대야가 발생했을 경우, 온열질환자 수는 최대 약 90%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주의보’는 폭염주의보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최저기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지형적 특성과 도시 열섬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지역

밤최저기온 25℃ 이상



대도시·해안·도서 지역

밤최저기온 26℃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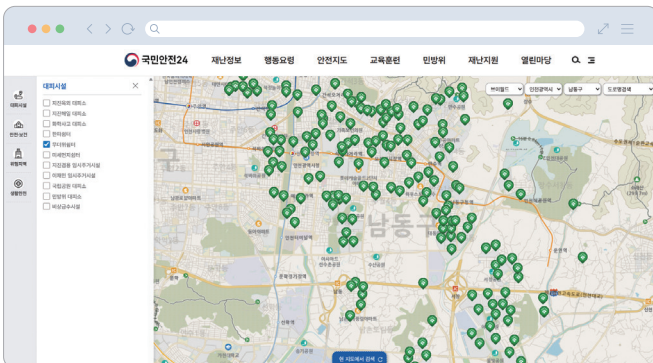


제주도

밤최저기온 27℃ 이상

국민안전24로 찾는 내 주변 무더위쉼터

폭염이 예상될 때는 내 주변의 무더위 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안전24에서는 현재 발효된 폭염특보와 재난문자, 대피장소 시설 안내, 폭염 행동요령 등 재난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안전지도를 통해 내 주변 대피시설과 무더위쉼터의 위치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안전24
(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소식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열대야 안심숙소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열대야 안심숙소

‘안심숙소’는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열대야 특보 발효 시 안전한 숙박 공간을 제공하여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동구, 미추홀구 5개 구에서 총 23개소의 안심숙소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평구 | 폭염·열대야 안심숙소

- 신청기간** 2026. 6. 1. ~ 9. 30. (09:00~18:00)
- 운영기간** 2026. 7. 1. ~ 9. 30. 폭염 특보 발효 시 (예산 소진 시까지)
- 이용시간** 당일 17:00 입실 ~ 익일 10:00 퇴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원내용** 숙박비 지원 (세대당 최대 5일)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이용 당일 15시 이전까지)
- 이용절차** 사전 신청 → 폭염·열대야 시 이용 안내(문자) → 숙소 배정 → 숙소 이용



연수구 | 폭염 안심숙소

- 운영기간** 폭염 특보 발효 ~ 해제 시
- 이용시간** 당일 18:00 ~ 익일 11:00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원내용** 숙박비 지원 (1일 최대 8만원 이내 / 세대당 최대 3일)
- 신청방법**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이용 후 영수증 제출



✓ 자세한 정보는 각 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박근선 사무관을 만나 폭염을 비롯한 여름철 위험기상을 대비하는 수도권기상청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5년부터 기상청에서 기상예보, 수치예보모델업무, 위성업무 등을 수행해왔고, 현재는 2024년부터 수도권기상청 예보과에서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수도권지역의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의 위험 기상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인천시 등 방재 유관 기관과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폭염을 비롯한 위험기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요. 수도권기상청 예보과에서는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근선 사무관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수도권기상청 예보과는 집중호우, 태풍, 폭염, 열대야, 대설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험기상으로 부터 인천을 포함한 2,6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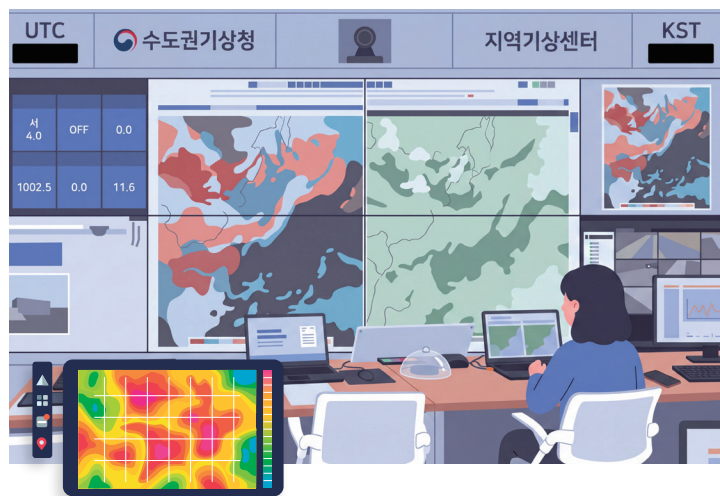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박근선 사무관

기관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보유하고 있는 정지궤도기상위성, 음영지역이 없는 레이더관측망과 700여대의 자동기상 관측장비를 활용해 백령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날씨를 24시간 중단 없이 감시하고 기상예특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와 사회기반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슈퍼컴퓨터의 일기도자료와 기온, 기압, 강수량 등의 변화를 정밀 분석해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필요시 호우, 폭염 등 기상특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일상화됨에 따라 폭염특보 체계 개편에 따른 기존 폭염주의보·경보를 넘어서는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 운영준비를 마쳤고, 특히 올해 인천지역 방재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재 대응을 위해 특보구역도 보다 세분화(기존: 인천시 단일 1개 특보구역 → 변경: 인천북부, 인천남부, 인천영종 3개 특보구역 세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시간당 강수량이 100mm이상인 호우 혹은 시간당 강수량이 85mm 이상이고 15분 강수량이 25mm이상인 호우에 대해 추가로 해당지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로 직접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업무를 5월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10~20분 정도의 위험 기상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경감이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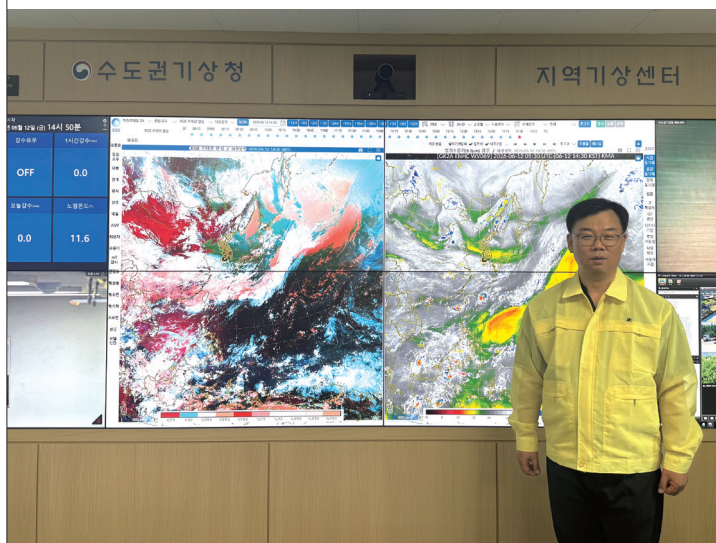
인천은 해안과 도심, 도서지역이 함께 있는 도시인데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인천 지역 폭염의 특징이나 최근 변화 경향에서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은 해안과 도심, 섬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인 기후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에 따른 폭염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기

상청에서 발간한 ‘수도권 52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최저기온 상승(+1.3도)과 열대야일수 증가(52년간 매 10년당 3.77일 증가)가 매우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안가와 인접한 특성상 습도가 높아 낮 동안 달아오른 열기가 밤새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분석 결과, 행정구역상 도시 지역이 비도시 지역보다 폭염일수가 약 1.7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도심(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의 시민들은 인공열과 아스팔트 등으로 인한 ‘도시 열섬 효과’에 더욱 노출되어 있으므로 체감 더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천의 강화나 백령도 등 도서·해안 지역은 내륙보다 최고기온은 낮을 수 있으나, 바다의 영향으로 밤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특성이 있어 기상청 특보 개편 시에도 일반 지역(25℃)보다 높은 26℃를 기준으로 열대야주의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섬 지역 주민들께서도 야간 열 스트레스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폭염 관련 기상정보와 특보 체계가 새롭게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 내용과 함께,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추어 18년 만에 폭염특보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낮과 밤을 아우르는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를 넘어, 전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었습니다.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만 예상되어도 즉시 가동됩니다.

폭염특보 단계별 발표 기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중대경보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 예상

주간에 폭염으로 인해 인체에 누적된 피로가 야간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 온열질환자 피해가 더욱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의 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열대야특보도 함께 신설됩니다. 열대야특보는 주의보 단계만 운영하며,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최저기온 25℃이상 하루만 예상되어도 발표됩니다. 다만 지형적 영향과 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해안·도시 지역은 26℃, 제주도의 경우 27℃를 기준으로 발표됩니다. 특보가 발령되면 밤에도 적극적인 냉방과 휴식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폭염특보나 열대야 정보가 발표되었을 때, 시민들이 해당 정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보를 단순한 '날씨 안내'가 아닌 '행동 유도' 정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중대경보) 발표시 단순히 기온 수치만 보지 마시고 습도가 반영된 '체감온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폭염경보 이상 시에는 야외활동 및 작업 중지/단축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 활동과 작업을 최대한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그늘, 무더위 쉼터 등으로 즉시 이동하여야 합니다. 야간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되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열 스트레스가 몸에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 폭염 쉼터 등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에어컨이 없는 주거 취약계층도 지자체의 폭염 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시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를 준비하며, 주기적으로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인천시민께 전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가 마주하는 여름철 폭우와 폭염의 강도 및 빈도는 과거와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인천지역의 여름철 길이(과거 20년 대비 최근 20년)는 과거보다 18일이나 길어졌으며 극한 고온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고 특보구역을 촘촘하게 세분화하여 인천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인천시의 정교해진 방재대책만큼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입니다. 올여름 호우 및 폭염 등의 기상특보와 기상정보 안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등 위험 정보가 수신되면 낮과 밤을 불문하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한발 앞서 대피하고 휴식을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주변의 홀몸 어르신이나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적기 대응체계가 적용되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기상청도 인천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름을 위해 매 순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행사

제11회 재난안전전시회

제11회 재난안전전시회



행사 개요

일 시 2026년 4월 4일(토) ~ 4월 5일(일)
장 소 인천대공원 문화마당 일원
주 최 인천광역시(시민안전본부)
참여인원 20,000여 명

프로그램

개 막 식 2026년 4월 4일(토) 10:00, 인천대공원 문화마당, 시민·단체 300여 명
캠 페 인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안전보안관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전 시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 수상작, 재난안전 사진전 등
체 험 소화기, 지진, 태풍, 완강기, 화재대피 체험 등



인천연구원-UNDRR ONEA & GETI 협력 선언문 조인식



인천연구원은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UNDRR ONEA & GETI)과 재난위험경감 및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선언문 조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조인식은 샌다이 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협력 선언은 인천의 재난안전 정책 역량을 국제적 협력망과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 기관은 앞으로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최 예정 2026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2026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이 오는 9월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본 포럼은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재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전문가 발표와 토론, 참가자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재난 안전과 도시복원력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포럼 개요

주 제	복합위험과 디지털 전환시대, 지역주도 복원력의 실행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 8일(화)
장 소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A
주 최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UNDRR(유엔 재난위험경감 사무국) 동북아사무소
후 원	행정안전부

2024

2025

IDRLF 2026
International Disaster Resilience
Leaders Forum Incheon





폭염 6대 행동요령



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

